

샤페론, BIO USA 2024 성료...적극적 파트너링 통해 유종의 미 기대

- ▶ 美 자회사 대표 맥코트, 사업개발총괄 이종은 전무 주축으로 30개 기업과 파트너링 진행
- ▶ '누겔', '누세린', '파필리시맵' 많은 관심 받아...전략적으로 기술이전 접근할 것

[2024-06-10] 샤페론이 바이오 USA에 참석해 주요 파이프라인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면역 혁신신약개발 바이오기업 샤페론(378800, 대표이사 성승용)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4(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4, 이하 바이오 USA)'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바이오 USA'는 전 세계 9000여개 바이오 및 제약 기업이 참석해 기술이전과 신약공동개발 등의 전략적 파트너링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행사다.

샤페론에서는 이번 바이오 USA에 작년 초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 허드슨 테라퓨틱스의 재니스 맥코트 대표와 본사 사업개발총괄 이종은 전무 등 글로벌 기술이전과 사업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유럽, 남미, 중국, 일본 등 세계 10여 개국의 제약사 30여 곳과의 일대일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샤페론은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신약에 대한 기술이전을 주로 논의했는데 파트너사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약물로는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인 '누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누세린', 그리고 이중표적 단일화 도메인 항체(나노바디)인 '파필리시맵' 등이 있다고 이 전무는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누겔'의 국내 2상 임상시험에서는 세계 최초로 고유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전체 피험자 중 75% 이상이 샤페론이 신규로 발견한 바이오마커에 대해 양성임을 관찰했다"며, "자세한 시험 결과는 국제 SCI급 학술지에 투고돼 논문 발표를 통해 곧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겔'의 기술이전 가능성에 관해 미국 자회사 허드슨 테라퓨틱스 맥코트 대표는 "올 11월쯤으로 예상되는 미국 임상 2상 중간 결과 발표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의 기술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있어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며, 기술이전의 시점과 규모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샤페론에서 개발 중인 2중 항체 나노바디 파이프라인인 '파필리시맵'의 경우 현재 전임상 시험을 대부분 마치고 임상 연구계획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전임상 단계에서 3중 항체 파이프라인으로 네덜란드의 메루스가 미국 길리어드와 약 2조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딜을 성사시키는 등 전임상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가능성도 높다고 맥코트 대표는 강조했다.

한편 샤페론은 기술이전 논의 중인 주력 제품 외에도 최근 동국제약과 업무협약을 통해 '만성염증에 의한 피부 노화(인플라메이징)를 억제하는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 공동 개발'과, 고려대학교 연구소가 이달 초 Nature 자매지에 논문을 발표한 내용인 '누세핀을 이용한 개심수술후 빈번한 호흡부전증 치료'에 관한 공동연구협약 체결 등 사업분야의 다각화와 적응증 확대를 위한 활발한 연구와 사업활동을 추진하고 있다.